



작년 교통사망사고 50명… 역대 최소

1986년 집계이후 가장 적어… 2013년까지 100명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카메라 확대도 사고 감소 한몫 ‘차 대 보행자’ 사고 많고 대부분 ‘안전운전 불이행’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한때 100명 이상 발생하던 것이 처음으로 ‘5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교통사고로 50명이 사망했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6년(사망자 115명) 이후 최저치로, 제주는 2013년(107명)까

지도 1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차 대 보행자’가 19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차’ 16명(32%), ‘차량 단독’ 15명(30%) 순이었다. 법규 위반 별로는 운전미숙이나 부주의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4%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이 각 3명씩 나왔다.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자는 각각 4명, 8명이었다.

지난 한 해 제주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의 활동을 벌였다. 실제 기존 10개 구간·24대였던 구간단속장비를 지난해 14개 구간·53대로 확대했으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21년 11월 기준 14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93건)에 비해 385건 늘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올해는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교통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경찰 단속이나 홍보, 안전속도 5030과 같은 교통정책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의 교통사망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2명, 2019년 66명, 2020년 68명 등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지법, 4·3 일반재판 수형인 32명 세 번째 심문 “특별재심 개시 여부 다음 주 결정”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여전히 ‘미군정(미국 육군 재판소)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이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2명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5일 진행했다.

32명은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4·3 과정에서 군·경에 체포돼 미군정의 ‘포고 2호·법령 19호’ 혹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다. 32명 중 생존자는 고태명(89)씨가 유일하고, 나머지 재심 대상자는 유족이 참석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권을 행사한 것인데, 우리(대한민국)가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한 명이면 몰라도 미군정 당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검찰도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청구 자격이 무제한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심문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 지속

5일 오후 5시 기준 19명 확진 속 5명이 연관

오미크론 확진 1명 추가

제주지역에서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는 등 두 자릿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5시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4788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들어선 127명이 감염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187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5명, 해외 입국자 3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명 등이다.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초등학교2’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제주시 보육시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집계됐으며, ‘서귀포시 어린이집’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1명이 확진됐다.

이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며 제주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일 제주에 입도한 뒤 3일 동행한 지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받아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제주바다 불청객 파래의 습격 4일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해수욕장에 끝없이 밀려온 파래가 잔뜩 쌓여 있다.

연인 폭행 조폭 법정구속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전직 조직 폭력배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B

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 B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같은달 24일 오후 10시에 도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법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조직 폭력배 활동을 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범기자

출생신고 안된 세 자매와 어머니

제주시·경찰, 긴급생계비 등 지원

속보=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24살·22살·15살 자매가 모두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됐다.

5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세 자매와 어머니 A씨의 유전자(DNA)가 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 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A씨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지난 4일 통합 회의를 열고 해당 가정에 대해 긴급생계비와 장학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날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자인 B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A씨 슬하 세 자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제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겨울철 해상사고 12명 사망·10명 실종

제주해경 최근 3년 사고 분석

겨울철 조업 어선에서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충돌·좌초·전복·화재·침몰·침수 등 6대 해상사고를 살펴보면 총 201건의 사고 중 11월 12건, 12월 13건, 1월 10건, 2월 12건 등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해경은 “겨울에는 단락·누전 등 전기 설비 결함이나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함께 기관 고장과 추진기 손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